

투데이 칼럼

큰일이다. 걱정이다

큰 일이다. 걱정이다. 우리 지역 군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안 될 일이다.

현재 군산지역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내륙개발이 한창이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된 상태다.

또한 새만금은 동서남북 2축 도로 국제공항, 항만 및 농생명융합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새만금에 배치해서는 안된다

당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등이 무산되면 중국이 경제제재조치를 하는 등 자칫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25년간 들인 돈이 얼마인가? 그걸 다 허공으로 날리자는 것인가? 물론, 국가인보를 소홀히 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



김경봉

더불어민주당 사무처장

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돈을 대준 셈이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의 생산액이 약 5억6,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0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에 따른 한국경제 피해 자체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북한에 대한 경제 효과 역시 미미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인건비로 얻는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이다. 북한

의 대외무역 규모 약 70억~80억 달러의 1%를 조금 넘는 것이다. 북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의 비중이 매우 작다. 북한 경제에 대한 타격 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 가는 인건비가 1억 달러인데 비해 남측 기업의 매출은 5억 6,000만 달러가 넘는다. 1대 5.6 비율이다. 누가 손해를 더 보는지 금방 알 수 있다. 124개 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가 5,000개나 되고 전체 노동자는 12만5,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화통회의 10년 새누리당 10년에서 도라야미타불 동토의 10년으로 회귀한 것인가....

논어(論語) 안연(顔淵)편에 보면 자공(子貢)이 정치(政治)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자 '공자(孔子)'가 답(答)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식량이 적(食足)하고 군대가 충실(軍足)하면 백성들이 정부를 믿게(民信) 되어 있다."라고 공자가 말했다. 자공이 물었다. "부득이 버려야 하면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하나요?" 공자는 "가장 먼저 군대를 버려야지."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또 물었다.

"부득이 또 버려야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하나요?" 공자는 "그럼 식량을 버려야지. 자고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무신불립(無信不立) 이야기이다.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은 국가 최대사업으로 수조원이 투자되고 내부개발이 한창인데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거론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믿음(信)이 없으니 정말 큰일이야. 어서 믿음을 회복하자.

사설

이제 전북도는 제 목소리를 내야

전북도는 제 목소리를 내는데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야 하는 지금, 영웅한 사건들이 절망들로 등장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강경한 목소리여야 한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떤 불안감 같은 게 느껴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았는데 이번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수십 년 간 전북 지역에 미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드는 것이다.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개성공단 폐쇄가 지역 경제에 큰 충격파이다.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나온 사드 배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만약의 경우이지만 경기도 평택이 아닌 군산지역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 된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엉망이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미래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지만 헛수고야 될 공산이 크다.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동북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꺾일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반대 의사를 더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전북도가 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다른 고장은 낱알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처럼 발전이 안 되는 것인지 유감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의 불륨을 더욱 키워야 한다. 향토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했거나 때면 발전상을 비교해 보자면 그 내용의 면면들이 초라하다. 전북 지역이 조금은 발전했구나 싶을 때,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도민들이 때면 안타까워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은 전북도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탓이 크다. 고장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상처는 깊다. 그런데도 자신이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있다. 우리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쳐져도 괜찮다는 말인가. 거듭 당부하거니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역적스러움이 필요하다.

독자제언

급증하는 노인범죄, 지속적인 관심 필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범죄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위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위축,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이 생길 때 증가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인인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 증가할 때 노인 범죄자 증가율이 27%에 이른다는 경찰청의 통계자료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쉽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등 노인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나 시민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환경이 열악한 것이 노인범죄가 급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을 중요하게 하는 등 노인문제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국가 사회 전체의 노인에 대한 책임의식과 노인문제가 현 세대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후대에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범죄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노인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범죄자 감소의 관점보다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 자발적으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양혜라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안전띠 착용 탑승자 위한 최선 방어책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귀찮거나 옷이 구겨진대거나 또 가슴이 답답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착용이 귀찮은 나머지 안전띠 버클만 별도로 구해서 클립에 끼우고 다니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교통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뒷좌석도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미비한 수준이기에 만약 고속도로로 달리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는 관성에 의해 차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 2차사고에 이어 3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단순한 부상에서 끝날 수 있는 사고도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열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고 승용차에 유아(5세미만)를 태우는 경우에는 뒷좌석이라도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체에 관계없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사망률은 3배가 높고 부상은 18배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안전띠는 생명을 연결해주는 끈이고운전자는 안전띠 착용으로 생명을 연결해 줄 수도 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함으로써 운전자가 바르게 되고 장시간 운전에도 목과 허리의 통증이나 피로감도 줄일 수도 있다. 안전띠는 차에 오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인 동시에 절대로 편안함과 맞바꿔서는 안되는 운전의 첫 번째 시작일 것이다.

임도훈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현안 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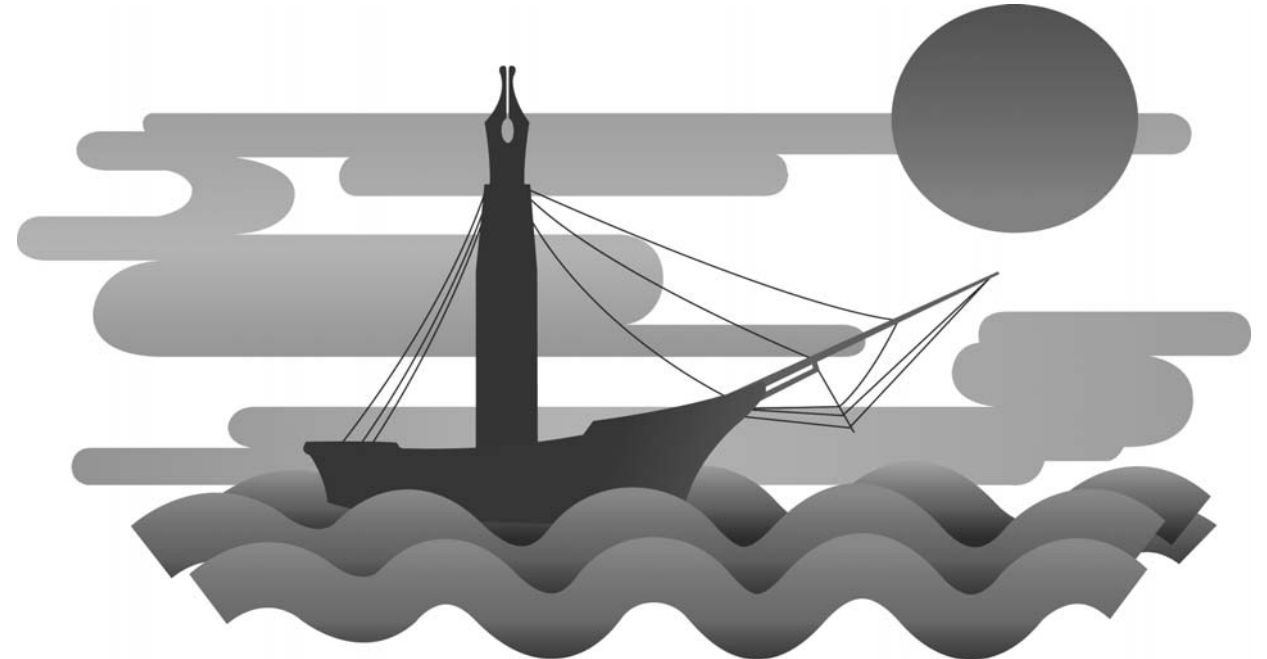
현안 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전북도의 말대로 중앙정부 탓이 크다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남의 탓만하기에는 세월이 아깝다. 정부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이 원망스럽다고 말만 되어서는 안 된다. 고장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북도 또한 그 책임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안 추진에 계속 힘을 내야한다. 지금 이대로는 민족을 말할 수 없다. 누군가는 욕심이 과하다고 말할겠지만 이 같은 주문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지금 이대로는 민족을 말할 수 없다. 지역의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마뜩치 않다. 지역의 오늘을 오래된 과거와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달라진 것이 별로 없음을 유감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비상한 각오의 당사자들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단체장들이다. 지금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는 이유가 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쪽의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현재 전북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새만금과 탄소산업이 먼저 떠오르는 중에 나머지 사업들은 그저 고만고만하다.

전북도는 미래를 약속한 사업들과 관련하여 생각이 많아야 한다. 그 생각들 중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도 포함돼 마땅하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말한다. 지역현안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의 구성이 치밀해야 했다. 전북도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더욱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도민들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